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이범호 주임, 자살예방 유공 표창 수상

이상엽 기자 | 기사입력 : 2025/09/09 [16:32:00]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(지사장 김태호)에 근무하는 이범호 주임이 지난 9월 1일 새벽에 발생한 자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명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포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.

당일 경찰은 지인에게 자살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이 두절된 시민을 긴급 위치추적한 결과, 김포간선 양능 제수문 인근으로 확인하고 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. 새벽 2시경 연락을 받은 이범호 주임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제수문 위치 안내와 CCTV를 신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소방대와 경찰의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.



또한, 당일 오전 6시로 예정된 양수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연시켜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모범적인 대응을 펼쳤다. 그 결과 자살 시도자는 안전하게 귀가해 큰 사고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.

이범호 과장은 “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”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은 “이번 사례는 공사와 지역사회, 경찰, 소방이 긴밀히 협력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모범적인 사례”라며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”고 전했다.